南北韓 國文學 體系의 比較와 統合 展望*

成 賢 慶**

Ⅰ. 서 론
Ⅱ. 남북한 국문학 체계의 비교
Ⅲ. 남북한 국문학사 체계의 비교
Ⅳ. 남북한의 국문학 체계 및 국문학사 체계의 통합 전망
Ⅴ. 결 론

Ⅰ. 서 론

본 연구는 인문학자와 사회학자 6인이 각각 자기 전공분야에서 북한의 학문 체계에 대해 연구하고, 나아가 북한의 학문 체계를 우리 남한의 학문 체계와 비교함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우리 통일 한국의 학문 체계가 어떻게 정립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전망하기 위해서 기도(企圖)되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국문학·국어학·국사학·철학·법학·경제학을 전공하는 6명의 학자가 각자 자신의 전문분야를 대상으로 북한의 학문 체계를 점검한 뒤, 그것을 남한의 학문 체계와 비교하는 한편, 남한과 북한의 서로 다른 학문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일이 과연 가능할지, 만약 그 통합을 시도할 경우에 제기되는 문제점이 무엇

*본 연구는 1998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인문·사회과학분야 중점영역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인지 등을 밝힐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국문학을 대상으로 한 제 3차 연도 연구로서, 제 1차 연도의 북한의 국문학 체계 고찰, 제 2차 연도의 북한의 국문학과 현실과의 관계 고찰에 이은 '남북한 국문학 체계의 비교와 통합 전망' 연구인 바, 제 1·2차 연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면서, 주로 남한의 국문학 체계와의 비교 및 그 통합 가능성 여부의 검토에 주안점을 두어 수행하고자 한다.

북한의 국문학사 체계를 북한의 국문학 체계를 다루는 자리에서 함께 다루려는 이유는 북한의 경우 국문학사 기술을 국문학학(국문학 연구)의 최종 단계로 여기고 중대시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문학이란 말을 사용할 때 문학 창작뿐만 아니라 문예학까지 포함한 넓은 의미로 사용할 때가 있다."[1]고 하면서 "예술로서의 문학 창작과 다른 과학으로서의 문예학의 영역은 크게 다음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하나는 문학의 이론을 다루는 것이고, 둘째는 문학사이고, 셋째는 비평이다. 문학·이론·문학사 그리고 비평을 통틀어 문예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2]라고 한 김재용의 문예학 개념에 따를 경우에도 국문학 체계를 논하면서 국문학사 체계를 함께 논하는 것은 필요불가결한 일로 파악된다.

마지막으로 상이한 학문관, 상반된 문학관과 역사관을 토대로 형성된 남한의 국문학 체계와 북한의 국문학 체계간의 통합 가능성과, 남한의 국문학사 체계와 북한의 국문학사 체계간의 통합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

1) 김재용, 북한 문예학의 전개 과정과 과학적 문학사의 과제, 『북한 문학의 역사적 이해』(서울: 문학과지성사, 1994), p.232.
2) 김재용, 위의 논문, 위의 책, 같은 쪽.

Ⅱ. 남북한 국문학 체계의 비교

1. 국문학의 상위 체계

북한은 '문학'을 그 자신 합목적성을 지닌 채 발생하여 존재하는 '자족적인 실체'로 보지 않고, 본질적으로 여느 사회적 의식들과 같은 의식 형태의 상부구조적 현상으로 본다. 즉 문학을 사회 자체의 내재적 요인,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합법칙적으로 발생[3]한 일개의 사회적 현상으로서 보고, 하나의 역사적 산물로서 보는 것이다.

문학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은 기본적으로 유물론적 시각 내지는 사관에서 비롯된 것인데, 북한은 1967년 주체사상·주체사관을 확립한 이후에는 이른바 주체의 문예이론을 바탕으로 문학을 재조명·재인식함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더욱 강화 내지 공고히 한다.

주체 사상에 입각한 문학이란 곧 인간학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공산주의적 인간학이다. 공산주의적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은 자연과 사회를 자주성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고 변혁하는 주체인 인간을 참다운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우며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 등의 모든 분야를 개조하는 데 이바지하는 선전·선동의 도구 내지는 무기로 자리매김된다.[4] 그러므로, 문학 작품 자체는 물론 문학 연구에 있어서도

---

3) 정성무, 『시대와 문학예술형태』(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7), p.27.
성현경, 북한의 국문학체계 개관, 『동아연구』 33(서울: 서강대 동아연구소, 1997), p.21.

4) 김정일, 『주체문학론』(평양: 조선 로동당 출판사, 1983), p.8.
"주체의 문예관에서는 우리 시대의 참다운 문학을 주체의 인간학으로 본다. (중략) 주체의 인간학은 인간을 사회적 관계 속에서 보면서도 그에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주성의 요구에 맞게 자연과 사회를 개조

당성·계급성·인민성이 그 무엇보다도 중시 또는 강조된다.

북한에서는 이와 같이 문학 내지 문학 연구를 인간학이라고 하면서도 그것을 인문과학의 하위 분야로 인식하지 않고 사회과학의 하위 분야로 인식한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이해 자체가 서방 사회 또는 자본주의 사회와는 달리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유물론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국가 내지 공산주의 국가들은 인문과학을 독자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아예 사회과학의 범주 속에 종속시켜 버린다.

북한의 김일성 대학의 경우 학부 편제가 5년제의 사회과학부와 6년제의 자연과학부로만 양분되어 있으며, 어학·문학·역사·철학 등을 다루는 학과들이 모두 사회과학부 산하에 예속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이다.

반면 남한은 문학을 '역사주의 원칙에 따라 사회적인 조건에 지배를 받으며 시대의 변천에 따라 변화 발전하는 역사적 합법칙성을 지닌 존재'로 보는 북한과는 그 처지를 달리한다. 또 문학을 북한처럼 교화의 한 수단이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 보지도 않는다. 남한은 문학을 다만 인간의식의 자율적인 산물로서, 자족적인 실체로 존재하는 합목적적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인문과학을 사회과학과 구별하여 별도의 독립적 영역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남한의 경우 국문학의 상위 체계는 곧 북한의 그것과 판이하다. 문학 예술이나 이것을 연구하는 문예학은 바로 인문과학의 연구 대상이거나 인문과학의 한 분야가 되고 있기에, 국문학의 경우 역시 당연히 인문과학의 하위 분야가 되는 것이다.

하고 변혁하는 주체로 형상한다. 그러한 인간의 전형은 바로 자주적인 인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이다."

2. 국문학의 하위 체계

그렇다면 국문학의 하위 체계는 어떠한가? 국문학을 그 존재 시기에 따라 북한은 일반적으로 고전문학과 근대문학 및 현대문학으로 3대분하는 데 비해, 남한은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으로 2대분하는 점이 우선 다르다[5]고 하겠다. 또한 국문학을 그 존재 방식에 따라서 구비(구술)문학과 기술문학으로도 가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가르는 점에서는 남북한이 일치한다. 그리고 기술문학은 한문 기술문학과 국문 기술문학으로 가르고 있는 점에 있어서도 남한과 북한이 일치한다.

한편 국문학의 갈래(장르) 체계를 북한의 경우도 일단은 서정문학·서사문학·극문학으로 3대분하는 듯이 보인다.[6] 그러나 실상은 고전문학의 경우는 운문문학과 산문문학으로 2대분하고, 현대문학의 경우에만 시문학·산문문학·극 및 영화문학으로 나눔[7]으로써 서정문학·서사문학·극문학의 3대분법에 다가가고 있다. 즉 시문학을 서정문학으로, 그리고 산문문학을 서사문학으로 간주한다면, 현대문학 갈래 체계의 경우 극문학이 극 및 영화문학으로 확장된 점이 특징적일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남한의 경우는 국문학의 갈래 체계를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의 구분 없이 모두 서정문학·서사문학·극문학으로 3대분하거나 서정문학·서사문학·극문학·교술문학으로 4대분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북한의 경우와는 얼마간 다르다고 할 수 있겠다.

---

5) 고전문학과 근대문학 및 현대문학의 범주 또는 시대 구분에 관해서는 'III. 남북한 국문학사 체계의 비교'에서 다루기로 한다.

6) "문학의 종류는 서사문학, 서정문학, 극문학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 현상으로 되고 있다."
한중모·김정웅·김준규, 『주체적 문예리론의 기본, (3) 문학 예술 형태』(평양: 문예출판사, 1992), p.12.

7) 성현경, 주 3)의 논문, p.38 참조.

또한 남한의 경우 문학의 갈래를 유개념으로서의 상위 갈래와 종개념으로서의 하위 갈래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를테면 문학을 서정·서사·극·교술문학으로 4대분하여 이를 상위 갈래라 부르거나 그리 인식하고, 이 상위 갈래를 다시 분류하여 그것을 하위 갈래라 부르거나 그리 인식하는 것이다. 예컨대 서사문학을 설화·소설·서사시 등으로 다시 잘게 나누어 이를 하위 갈래로 인식하거나 그렇게 일컫는 것이다. 그러나 이 상위 갈래와 하위 갈래란 개념은 대체로 분류자의 머리 속에만 잠재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이 큰 갈래 단위와 작은 갈래 단위 사이를 구분짓는 별도의 이름(명칭)도 주어져 있지를 않은데, 북한의 경우는 남한의 경우와는 달리 큰(상위의) 갈래 단위를 '종류'라 일컫고, 작은(하위의) 갈래 단위를 '형태'라 일컫고 있다. 갈래 분류시 북한이 사용하고 있는 이와 같은 용어들에 대해서는 우리 남한 쪽이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8]

Ⅲ. 남북한 국문학사 체계의 비교

1. 북한의 국문학사 체계 — 시대 구분 및 서술 체계

국문학개론이 국문학을 공시적으로 다루는 것이라면, 국문학사는 국문학을 통시적으로 다루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 문학개론서나 국문학개론서가 국문학사서(國文學史書)에 견주어 상대적으로 영세하다. 이는 물론 복합적인 결과일 것이다.

문학개론서가 별로 없는 것은 우선 문학에 대한 저들의 인식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김정일의 교시가 문학개론의 역할, 문학에 대

8) 성현경, 주 3)의 논문, pp.23~24 참조.

한 당의 지침서 역할을 하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그리고 국문학개론서가 적은 것은 저들의 문학관으로 인해 과거에 존재했던 우리의 모든 갈래의 문학과 모든 작품들이 거론의 대상 또는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없었던 데에도, 또 그것들을 왜곡하여 수용한 데에도 그 원인이 있었을 법하다. 즉 지난날의 모든 국문학 장르와 작품들이 '역사주의'와 '공산주의적 인간학'이라는 원칙에 의하여 두루두루, 그리고 모두 다 포용될 수 없었을 터이기 때문이다.

한편 저들은 국문학사의 기술 또는 국문학사의 체계화를 국문학 연구의 최종 목표로 삼고 있기에, 국력을 기울여 이 작업에 치중한 결과 저들의 국문학사서가 우리들의 그것들에 견주어 일견 우세한 듯이 보인다. 그러나 그 실상인즉 오히려 그 정반대인 것이다. 아무튼 집체적이면서 일양한 북한의 국문학사서와 개체적·개성적이면서 다양한 남한의 국문학사서는 퍽 대조적이라 하겠다.

북한의 학문은 어느 것이거나 간에 정치와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국문학의 연구나 국문학사의 연구도 정치의 영향을 받게 된다. 광복 이후 1960년대까지의 국문학의 연구는 노동당의 지원에 힘입어 주로 일본 제국주의의 강점기로부터 연구 활동을 해온 월북 학자들이 주도하면서, 특히 고전문학 작품의 수집·발굴·번역·해체·윤색 등의 1차적인 작업과 개별 장르에 대한 연구에 그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러나 1967년에 이른바 주체사상, 주체문예이론이 확립되면서 그 사정은 아주 달라진다.

하지만 국문학사서만큼은 저들이 역사서의 일종으로 간주하여 매우 중시하는 바, 어디까지나 정부의 사회주의 노선·사회주의 시책에 의거하여 기획·집필·출간된다. 『조선문학사』 책은 과연 1956년 당시 김일성 종합대학의 교수인 리응수·윤세평·안함광이 각 시대를 세기

중심—1~14세기, 15~19세기, 20세기 이후,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 각각 차례대로 한 권씩 분담하여 전(全) 3권으로 간행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 3권 곧 현대문학기를 책임 집필한 안함광은 현대문학기를 1919~1930년, 1930~1945년, 1945~1950년(평화적 민주건설시기), 1950~1953년(조국해방시기), 1953~전후 인민경제 복구시기 등으로 세분하여 논하고 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저들이 현대문학기의 기점을 3·1운동으로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이 아직 주체사상이 확립되지 않은 시기의 저술인 까닭에 빚어진 결과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광복 직후부터 6·25전쟁까지를 평화적 민주건설시기, 6·25전쟁 기간을 조국해방시기, 휴전 이후를 전후 인민경제 복구시기 등으로 분절, 명명하고 있는 사실로부터 저들이 이미 일찍부터 국문학사서를 문학작품과 문학적 사건 중심으로 바라보고 분석·종합하여 기술하기보다는 투쟁사(계급투쟁사·민족투쟁사) 중심 내지는 이데올로기 중심으로 바라보고 기술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음을 간파할 수 있다.

이 뒤 1959년에 집체적으로 국문학사를 서술한 첫 결과물이 『조선문학통사』란 이름으로 상(고전문학편), 하(현대문학편) 두 권으로 나뉘어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문학연구실에 의해 간행되지만, 이 책은 대체로 앞 책의 내용을 간추리고 가다듬어 내놓은 것이다. 또한 주체사상이 확립되기 이전의 간행물이란 점에서 역시 특기할 것이 적다.

주체사상이 정립되고 나서 집체(集體) 전작(全作)으로 출현한 첫 국문학사서가 1977~1981년에 걸쳐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가 집필하고 과학·백과사전출판사가 찍어낸 다섯 권 짜리 『조선문학사』이다. 이 책은 리응수·윤세평·안함광의 『조선문학사』가 전 3권 중 제 3권 한 권만을 현대문학사편으로 할당한 것과는 달리 전 5권 중 네 권을 근대

문학사와 현대문학사에 할애하고 있다. 따라서 고전문학사는 오직 한 권으로만 취급되고 있는데, 이것이 곧 고전문학사가 좁게는 당성, 넓게는 주체사상을 현양하거나 선동·선전하는 데 그다지 유용하지 못한 부분이란 판단에서 연유한 결과임은 자명하다. 또한 이것이 김일성의 양친과 김일성 내외 등 그 일가의 활동상을 장황하게 기리려다 보니 자연적으로 빚어진 결과라는 점도 자명하다.

이 『조선문학사』의 경우 주체사상의 틀에 맞추어 주체의 방법론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조선문학통사』에서의 카프중심 서술이 김일성 위주로 탈바꿈된 것이다. 이전의 카프 활약이 대폭 약화 내지 축소된 대신에 김일성 일가의 존재를 대폭 부각시키고 미화"[9]시킨 것이 그 특징이다. 제 2권이 김일성의 부친인 김형직과 모친인 강반석의 사회주의 운동을, 제 3권이 김일성의 문예운동을, 제 4권 및 제 5권이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바로 그 미화성을 입증한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주목되는 북한의 국문학사 책은 최근 방대한 분량의 문학사서로 기획·집필되어 1991년부터 출간되어 나오고 있는 사회과학출판사의 15권 짜리 『조선문학사』이다.

이 책은 김하명이 소장으로 있는 사회과학원 주체문학연구소 소속의 많은 국문학 학자들이 시대별로 분담하여 집체적으로 집필한 결과물로서, 전 15권 가운데서 제 1~6권이 고전문학사, 제 7권이 근대문학사[10], 제 8~15권이 현대문학사편으로 역시 현대 쪽에 치우쳐 있는 편이다. 이 책은 특히 김일성 일가 중심의 항일 빨치산 활동을 위시한 해방 후의 문학에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

---

9) 이명재, 북한 문학사의 기술 현황과 그 과제, 『북한문학의 이념과 실체』(이명재 편; 서울: 국학자료원, 1998), p.20.

10) 제 7권은 19세기말~1925년까지를 다루고 있다.

이 책의 시대 구분 체계를 간략히 개관하기 위해서 우선 전 15권이 각기 다루고 있는 시기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 1권 원시~9세기
제 2권 10~14세기
제 3권 15~16세기
제 4권 17세기
제 5권 18세기
제 6권 19세기
제 7권 19세기말~1925년
제 8권 1926~1945년(I)
제 9권 1926~1945년(II)
제 10권 평화적 민주 건설 시기
제 11권 조국 해방 전쟁 시기
제 12권 전후 복구 건설 및 사회주의 기초 건설 시기
제 13권 사회주의의 전면적 건설 시기
제 14권 사회주의의 완전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 시기(I)
제 15권 사회주의의 완전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 시기(II)[11]

우리나라 역사를 시대구분함에 있어서 1962년 김희일이 주창한 대로 사회구성체설을 바탕으로 한 생산양식의 기반에 의거, 원시(원시공동체적 생산양식 기반)·고대(노예적 생산양식 기반)·중세(봉건적 생산양식 기반)·근대(자본주의적 생산양식 기반)·현대(사회주의적 생산양식 기반)로 5대분하는 듯하더니만 주체사상에 입각한 역사관이 도입되면서부터는 근대와 현대의 분류 기준 내지 개념에 관한 한 그 사정이 달라지게 된다. 즉 우리의 근대사를 '자본주의 사회에 상응하는 역사'로

11) 사회과학원 주체문학연구소, 『조선문학사』 I(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1), p.3 및 성현경 주 3)의 논문 pp.30~31 참조.

서 '자본주의 사회 역사의 고전적 형태와 구분되는 특수한 유형의 길'을 밟는 '식민지(반식민지) 반봉건 사회시대'로 보고, 근대사의 시점과 종점을 1866년~1945년으로 규정한다.

한편 1979년부터 출간되기 시작하여 1983년에 완결된 국사책『조선전사』(전 33권)는 조선 현대사의 기점을 1926년 '타도 제국주의 동맹'의 결성으로 규정함으로써 1962년의 결론을 완전히 뒤집고 있다.[12]

우리 국문학사의 시대를 국문학의 작품·경향·사조·특색·사건 등을 중심으로 가르거나 국문학적 현상들에 기반을 두고 그것들을 참조하면서 가르는 것이 아니라 다분히 국사의 시대구분 방법과 결과에 의존하고 있는 북한의 경우 국사와 국문학사의 시대구분 결과가 기본적으로 다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국문학사의 시대구분이 국사의 시대구분에 따르고 있다고 한 위의 표현은 실상 정확한 것이 못된다. 왜냐하면 1962년의 경우 국사나 국문학사의 시대구분의 기준이 될 계급투쟁설과 사회구성체설을 바탕으로 한 이론이 먼저 수립되었고, 1967년의 경우 역시 국사나 국문학사의 시대구분의 기준이 될 주체사관의 이론이 먼저 수립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사나 국문학사의 시대구분들은 실상 저와 같은 이론 내지는 사관을 기반으로 한 일란성(一卵性) 쌍생아(雙生兒)로서 서로 다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사회과학출판사가 간행한 15권 짜리『조선문학사』를 보면 시대구분 원칙이 과연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원시~9세기'를 다루고 있는 제 1권이 "제 1장 조선문학의 시초(원시문학), 제 2장 고대문학, 제 3장 삼국시기 문학, 제 4장 발해 및 후기 신라시가 문학"을, 그리고 제 2권이 고려시대 문학을, 제 3권이 조선조 건

12) 박태상,『북한 문학의 현상』(서울: 깊은샘, 1999), pp.16~17.

국부터 임진왜란 직전까지를, 제 4권이 17세기—임진왜란 이후부터 17세기말까지—를, 제 5권이 18세기를, 제 6권이 19세기의 문학을 취급하고 있어서 시대구분의 원칙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고전문학의 시대를 '원시·고대·중세'로 나누는 것도 아니고, 또 왕조별로 가르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또 세기별로 분류하는 것도 아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을 두루 섞어서 쓰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근대문학기에 해당하는 19세기말~1925년을 한 권(제 7권)을 할애하여 다루는 반면, 현대문학기에 속하는 1926~오늘날을 여덟 권—제 8·9·10·11·12·13·14·15권—을 할애하여 다루고 있는데, 이는 저들이 주체사상이 만들어진 뒤 그것에 의해 펼쳐지는 현실 또는 현대사를 얼마나 중시하는가를 여실히 방증한다. 1926~1945년의 문학을 I과 II로 나누어 각각 제 8권·제 9권, 두 권에 갈라 싣고 있는 것이 또한 주목되는데, 이것이 곧 김일성 일가가 광복에 기여한 공로를 인민들에게 널리 선전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빚어진 결과임은 재삼 언급할 나위가 없다.

우리는 이상을 통해서 저들이 우리 문학사를 시대구분하고 그 서술을 체계화함에 있어서 처음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유물사관에 입각하여 하다가 나중(1967년 이후)에는 주체사관에 의거하여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남한의 국문학사 체계 — 시대 구분 및 서술 체계

우리 문학사를 서술함에 있어서 남북이 나뉘기 이전인 광복 이전에는 사회사적 방법[13]과 민족정신사적 방법[14]도 원용되기는 했으나 주로

13) 이명선, 『조선문학사』(서울: 조선문학사, 1948)
14) 조윤제, 『한국문학사』(서울: 탐구당, 1963)

교체 왕조에 의거하는 방법이 원용되었다. 그러나 남북이 갈린 광복 이후에는 언어를 중심으로 하되 문학담당층을 고려하는 방법[15], 문자를 중심으로 하되 문학 갈래를 참조하는 방법[16] 등 새롭고 참신한 방법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역시 교체 왕조별로 기술하려는 경향이 농후하였다.

그런데 최근에 출간된 조동일의 『한국문학통사』는 우리 국문학사를 기술하고 시대구분함에 있어서 문화적 의식사와 문학담당층을 함께 참조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이 책은 일단 우리 문학의 시대를 원시문학 시대·고대문학 시대·중세문학 시대·근대문학 시대·현대문학 시대, 이렇게 크게 다섯 시대로 갈라서 다루고 있는 점, 또 고대문학 시대의 문학을 다루는 가운데서 삼국 시대의 문학을 다룬 뒤에 통일 신라와 발해 시대의 문학을 '동시에 묶어서' 다루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원시문학' 시대를 설정하여 다루고 있는 점과 '통일 신라와 발해'를 곧 '남국과 북국'의 분단 국가로 인식하여 이 시대들을 동시대로 간주, 동시에 다루고 있는 점은 아마도 저 북한 문학사의 시대구분 방식이나 서술 체계의 틀을 참조한 결과가 아닌가 여겨진다.

그러나 이 『한국문학통사』는 이미 앞에서 말했듯이 문학담당층이나 우리 민족의 문화적 의식 등을 고려하면서 시대를 나누고, 그 서술의 체계를 수립하려 애쓰고 있는 점이 돋보이는데, 문학사를 다루는 마당이니 만큼 어디까지나 '문학'을 그 기준 또는 주체로 하겠다는 자세가 우선 두드러진다고 하겠다.

이 책은 우리 문학사를 원시·고대·중세·근대·현대의 다섯 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마다 그 문학적 명칭을 부여·명명하기 이전에 일단

15) 김흥규, 『한국문학의 이해』(서울: 민음사, 1986)
16) 김수업, 『배달문학의 길잡이』(서울: 선일문화사, 1983)

각 시기별로 차례(번호)를 매긴 뒤, 그 시기의 문학적 특징을 추출하는 일부터 시작하고 있다. 즉 첫 시대를 첫째 시대라 이름 지은 뒤 그 첫째번 시대는 우리 나라에 문자가 탄생하기 이전으로서 구비문학만이 존재하던 시기인 만큼 '구비문학 시대'라 명명한다.

또 다음 시대는 둘째 시대로서 건국신화가 출현하고, 한자의 유입과 함께 한문학이 성립하며, 향찰의 창제와 함께 향가가 형성되는 시대로, 다시 그 다음 세대 곧 셋째 시대는 한문학, 특히 한시와 더불어 시작되는 시대로서 향가, 특히 '사뇌가'라고 불리는 10구체 향가가 주류를 이루던 시대 즉 사뇌가 시대로, 또 그 다음 시대 곧 넷째 시대는 경기체가가 주류를 이루던 시대 즉 경기체가 시대로, 다섯째 시대는 소설이 등장하고 이른바 '시민'이 문학을 담당하던 시대로서 중세적인 문학과 근대적인 문학이 공존하면서 서로 다툰 시대로서 인식한다. 17세기부터 기미 독립운동 당시까지를 바로 이 다섯째 시대에 넣고 있는데, 이 시대를 제 1기와 제 2기로 나누어 제 2기는 1860년경 최제우가 <용담유사>를 짓던 시기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잡고 있다. 한편 여섯째 시대 곧 근대문학시대는 1919년 또는 1920년대 이후에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위에서 첫째 시대를 곧 원시문학기, 둘째 시대를 고대문학기, 셋째 시대를 중세문학 전기, 넷째 시대를 중세문학 후기, 다섯째 시대를 중세문학에서 근대문학으로의 이행기, 여섯째 시대를 근대문학기로 보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남한의 국문학사 시대구분에 있어서는 근대문학의 기점과 종점을 언제로 잡느냐가 주로 문제될 뿐 다른 것이 별로 쟁점이 되지는 않는다. 근대문학의 기점을 영·정조 시대로 올려잡는 경우[17], 개항 언저리로

17)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서울: 민음사, 1973).

잡는 경우[18], 1920년대로 내려잡는 경우[19] 등으로 갈라볼 수 있다.[20]

한편 김열규는 우리 남한의 국문학사 서술(기술) 방법론을 ①진화론, ②발전사관, ③연대기적, ④백과사전적 전시법 등으로 정리한 뒤, 한 권의 문학사에서 이들 중 몇 가지 범주가 혼재하고 있는 실례로서 『한국문화사 대계 V』[21]의 '언어·문학사'를 들고, 백과사전적 전시법을 원용해 기술하고 있는 예로서는 조동일의 『한국문학통사』를 든다.[22]

또한 김열규는 "우리의 국문학사 서술이 위의 네 가지 방법론이 주조를 이루는 가운데 ①역사학(한국사) 측에서 시대사의 본보기를 구하면서 그것에 문학사를 맞추어 서술하기, ②이념은 있어도 문학은 없는 문학사 쓰기, ③'문학사 곧 시대사'라는 등식이 보여주듯 미메시스 이론에 의거해서 작품 읽기를 하고 그 결과는 시대별로 나열하기 등의 문학사 편찬(Historiography)을 이룩해왔다. 그러면서도 문학사를 구성하는 원리는 단자론적(單子論的)이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한국문학사 연대기의 실상"[23]이라고 꼬집어 지적한 바 있는데, 이러한 지적이 곧 남한의 국문학사 서술 체계에 대한 지적으로서 알맞은 것이기는 하지만 실상 이는 북한의 국문학사 서술 체계에 대한 지적으로서 더욱 적절한 것 같다.

---

18) 김용직, 『한국근대시사』, 上(서울: 학연사, 1986).
19)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1~5(서울: 지식산업사, 1982~1988).
20) 이재선, 한국문학사에 있어서 '고대'와 '현대', 『한국문학사의 현실과 이상』(김열규 외; 서울: 새문사, 1996), p.115 참조.
2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73.
22) 김열규, 한국문학사 기술의 제문제, 『한국문학사의 현실과 이상』(김열규 외 ; 서울: 새문사, 1996), pp.9~10.
23) 김열규, 위의 논문, p.10.

IV. 남북한 국문학 체계 및 국문학사 체계의 통합 전망

1. 국문학 체계의 통합 가능성과 문제점

남한의 국문학 체계와 북한의 국문학 체계는 그 하위 체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아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상위 체계이다.

국문학을 남한은 인문과학의 하위 영역으로 보는 데 반하여, 북한은 사회과학의 하위 영역으로 보고 있는 점이 커다란 차이라고 하겠다. 이 차이는 단순히 과학을 분류함에 있어서 3분법을 적용하여 인문과학·사회과학·자연과학으로 나눈 결과와 2분법을 채택하여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으로 나눈 결과 사이의 차이가 아니겠는가. 이것이 무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가. 이와 같은 반문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으나, 실상 이는 피상적 관찰에서 나온 진술이다.

문학 내지 국문학을 인문과학의 하위 갈래로 보는 남한의 경우는 '문학'을 그 자체로 합목적성을 지닌 채 존재하는 '자족적인 실체', '자율적 구조물'로 보는 것이고, 사회과학의 하위 갈래로 보는 북한의 경우는 문학을 사회적 요인에 의해 합법칙적으로 발생한 역사적 산물로서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라고 보는 것인 바, 여기에는 이같이 천양지차(天壤之差)를 지니는 남북한간의 문학관이 반영되어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남한의 경우 문학 창작이나 국문학 연구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있지만, 북한의 경우는 문예 창작이나 국문학학이 단지 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이미 앞에서 밝혔듯이 주체사상에 입각한 문학이란 곧 인간학,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공산주의적 인간학인 바, 문학 창작

은 물론 문학 연구도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고, 당성·계급성·인민성이 그 무엇보다도 중시·강조되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처럼 하늘과 땅 사이만큼이나 큰 차이를 보이는 국문학 체계에 대한 인식을 과연 하나로 통합할 수 있겠는가. 과연 이 양자 사이에서 타협이 가능하겠는가. 양자간의 균형과 조화를 꾀한다고 하는 것, 그 절충점을 찾는다고 하는 것이 실현 가능하겠는가.

필자가 보건대는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진다. 이는 곧 체제 선택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믿는다. 통일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하느냐, 사회주의 체제를 수용하느냐에 따라 곧 현 남북한의 국문학 체계들 가운데 하나를 채택, 어느 한 쪽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2. 국문학사 체계의 통합 가능성과 그 문제점

남북한 사이에는 각자의 문학관이 현격히 다를 뿐 아니라 역사관 또한 문학관 못지 않게 현저히 다르다. 그러므로 국문학사의 서술 체계 내지 서술 방법이 서로 다른 것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남한의 경우는 문학과 문학사를 개인주의적·개체주의적이면서도 민주주의적인 자유롭고도 다양한 문학관 및 역사관에 따라 접근하는데 반해, 북한의 경우는 문학과 문학사를 집단주의적·집체주의적이면서도 마르크스-레닌주의적 내지는 주체사관적인 획일적 문학관 및 역사관에 입각하여 접근하기 때문에 양자 사이에는 하늘과 땅 사이만큼의 거리가 있다. 이미 전술했듯이 문학관과 역사관의 차이는 결국 국문학의 체계에 대한 인식상의 차이는 물론 국문학사 서술 방법론상의 차이마저 가져오게 마련이다.

> 남한의 경우 그 방법론이 다양하다. 즉 정신사적 방법을 비롯하여 사회와의 관련성 속에서 서술하는 경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어느 하나의 경향으로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계급결정론이나 사회주의적 경향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오히려 텍스트 중심주의에 가깝다. (중략) 이에 비해 북한의 경우, 문학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회학주의가 압도적이다. 북한의 문학사는 사실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그 위에 낭만주의를 인정하는 것이지만, 작품의 구체적 해석에 있어서는 항상 계급결정론 혹은 사회학주의가 우세하기 마련이다.[24]

한편 남북한간에는 국문학사의 서술 주체가 다르고, 서술 체계가 다르다는 점을 다시 더 지적할 수 있겠다. 그 서술 주체가 남한의 경우 대체로 한 개인의 학자인 데 비해, 북한의 경우는 집단이라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그 집단은 김일성 종합대학 어문학부와 사회과학원 산하 문학연구소[25] 두 집단이다. 이 두 집단, 두 기관에 소속된 학자들이 각기 자기 분야별·부분별로 나누어 분담 집필하지만, 한 기관에 속한 학자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읽고 돌려가면서 감수(監修)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집체 서술의 성격을 띤다.

그리고 그 서술 체계는 남한의 경우 거의 무한정한 작품들을 대상으로 한 개성적·창의적이면서도 다양한 문학 중심의 서술 체계인 데 비해, 북한의 경우는 한정적인 작품들을 대상으로 한 일정한 방향성을 지닌, 일관되면서도 획일적인 서술 체계 곧 단자론적인 서술 체계이다.

한 국문학자는 이와 같은 북한 문학사의 서술이 지니고 있는 취약점과 일부 특장점으로서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26] ①철

24) 설성경, 남북한 문학사의 비교, 『한국문학사의 현실과 이상』(김열규 외 ; 서울: 새문사, 1996), pp.223~224.
25) 설성경, 남북한 문학사의 비교, 위의 책, p.220.

저하게 통제된 문학사 서술인 점, ②문학 밖의 특정인 위주로 편술되었다는 점, ③문학사적인 사실이 수시로 왜곡, 날조된 점, ④철저한 배제론과 추앙의 원칙에 의해 기술된 점, ⑤항일혁명문학을 문학사의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점, ⑥식민지 시대 당시에 구전된 익명성의 작품을 중시하는 점.

그러면서 북한의 문학사에 대해 "그것이 비록 고전과 현대를 일관되게 민족주체적인 문학사관에 의해 서술한 긍정적인 요소를 지녔다손치더라도 특수한 유일사상 체제하에서 당의 시책에 복무해 온 북한 문학의 그것은 앞에서 살펴온 바대로 철저하게 통제되고 날조된 특정인 중심의 오도(誤導)된 문학사로 상존한다. 그런 중에도 일제 강점기의 구전문학을 포함한 혁명문학 접근이나 장르별 정리 방법 등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요소도 없지 않음은 물론이다. 우리는 이러한 북한 문학사의 그것을 남한 문학사의 그것과 연결시키고 조화롭게 재창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는 이제 위에서 고찰한 남북 문학사의 이질감을 해소하고 통일된 민족 문학사를 변증법적으로 합일화(合一化)해서 새로 써야 한다."[27]고 주장한다.

북한 문학사가 지니고 있는 장단점과 남한 문학사가 지니고 있는 장단점 가운데 그 단점들을 버리고 장점들만을 살려 새로운 문학사·통일된 문학사를 조화롭게 재창조하자는 주장은 일견 옳고 그럴 듯해 보인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남북한의 이질적 국문학사를 변증법적으로 합일화'해서 '통일된 민족문학사를 새로 쓴다'는 일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하는 데 미칠 때 저와 같은 주장은 하나의 이상론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

26) 이명재, 북한 문학사의 기술 현황과 그 과제, 『북한 문학의 이념과 실체』(이명재 편 ; 서울: 국학자료원, 1998), pp.23~28.

27) 이명재, 위의 글, 위의 책, pp.29~30.

한편 『북한의 우리 문학사 인식』은 "북쪽의 문학사가 목적의식적인 주체의 문학사라면, 이 시기 남쪽의 문학사는 맹목적인 객체의 문학사라 이해"[28]해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주체와 객체의 변증법적 통일이 모색되어야만 통일된 민족문학사를 기술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과연 북한의 국문학사 서술 체계와 남한의 국문학사 서술 체계가 상호간 '변증법적 통일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또 각기 그 통일이 가능한 '주체'와 '객체'일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이 서술 체계간의 문제가 과연 '주체와 객체의 문제 또는 주체의 문학사와 객체의 문학사의 문제'일까?

이것은 곧 앞 장(章)에서 다룬 '국문학의 체계'를 둘러싼 남북한의 통합 문제와도 연결되는 문제, 아니 온전히 대응되는 문제가 아닐까 한다. 국문학의 (상위) 체계에 대한 인식을 하나로 절충·통합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방편적(方便的)인 문학사와 순수한 문학사, 목적적 문학사와 맹목적 문학사, 상대적 문학사와 절대적 문학사, 주관적 문학사와 객관적 문학사를 '변증법적 통일'이란 이름 아래 '절충'한다는 것도 역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의 '국문학사 서술' 혹은 '국문학사 서술 체계' 속에서 부분적으로 취할 점들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가령 이명재가 밝히고 있듯이 북한이 항일혁명문학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라든지, 식민지 시대 구전되던 익명성의 작품도 중시하고 있는 점, 그리고 북한이 취한 장르별 정리 방법 등은 참조·수용할 만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김재용이 암시 내지 주장하고 있듯이 1967년의 주체사상 확립 이전에는 "봉건사회의 계급적 모순보다는 반침략적 문제를 기본으로 설정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당대 문학의 제반 문제를 이해하려던 경향"을 보이던 북한이 1967년 주체사상이 확립된 이후에는 "봉건사회의 계급 모순 속에서 반

28) 민족문화연구소, 『북한의 우리 문학사 인식』(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1), p.9.

침략 문제를 통일적으로 이해하면서 그것에 기초하여 문학적 제 현상을 설명"[29]하려 하고 있는데, 이처럼 반침략 문제를 봉건사회의 계급적 모순 속에서 다루려 하는 노력 같은 것은 우리가 일단 참고해볼 만하지 않을까 여겨진다.

이와 같이 북한의 국문학사 서술 또는 그 서술 체계가 지니고 있는 일부 특징 내지 장점들을 긍정적으로 취하는 일은 바람직한 일로 판단된다.

V. 결 론

지금까지 검토·고찰한 결과, 남한과 북한은 상호 문학관과 역사관을 달리할 뿐 아니라 학문관 역시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양쪽의 학문 체계 또한 상이하였다. 국문학 체계의 경우—정확히 말하면 국문학학의 체계 또는 국문학 연구 체계의 경우— 남한은 인문과학의 한 영역, 인문과학의 하위 영역으로 되어 있는 데 비해, 북한은 사회과학의 한 영역, 사회과학의 하위 영역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한의 경우, 문학을 순수하게 하나의 독자적·자율적·객관적 상관물로서 보는 데 비해, 즉 문학 그 자체로 보는 데 비해, 북한의 경우는 하나의 정치 수단으로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선전·선동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 혹은 무기로서 보기 때문에 문학 그 자체에 대한 관점 또한 천양지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학을 유물론적 사관 내지는 주체사관에 입각해 바라보는 북한이 이 문학을 공산주의적 인간학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29) 김재용, 북한 문예학의 전개 과정과 과학적 문학사의 과제, 『북한 문학의 역사적 이해』(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4), p.245.

지 모른다. 그러므로 남한과 북한 사이의 국문학의 상위체계에 대한 상이한 인식을 하나로 절충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국문학의 하위 체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상호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점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아 거론할 필요가 없겠다.

본고가 다음으로 검토한 것은 국문학사의 체계—국문학사의 시대구분과 서술체계—인데, 남한의 경우 국문학 작품이나 국문학 현상, 국문학적 사건 등을 중심으로 그 역사를 나누고—시대구분하고— 기술하며 체계화하려는 노력이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 일반화되어 가는 데 견주어, 북한의 경우는 주체사상·주체사관에 입각하여 그 역사를 나누고—시대구분하고— 기술하며 체계화하고 있었고 또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다.

남북한간에 국문학(학)의 체계를 서로 절충하거나 변증법적으로 통일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북한간에 국문학사의 체계를 변증법적으로 통합한다고 하는 일 역시 회의적(懷疑的)인 일, 지난(至難)한 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방편적(方便的)인 문학사와 순수한 문학사, 목적적 문학사와 맹목적 문학사, 상대적 문학사와 절대적 문학사, 주관적 문학사와 객관적 문학사의 사이에 '변증법적 통일'이란 이름으로 '절충'을 시도한다고 하는 것은 기실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현재 남한에는 남한이 '시학'이 없거나 희소화된 채 '문학사'가 일방적으로 우세한 문학 연구 풍토를 조성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심지어 문학사 해체론 내지 문학사 무용론을 주장하는 학자[30]도 있을 정도로 국문학사에서의 '문학' 중심론이 강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출현할 남한의 국문학사서는 북한의 국문학사서와 그 거리가 더욱 멀어질 공산이 크다. 하지만 평민주의적·사실주의적 성향을 띠는 문

30) 김열규, 한국문학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한국문학사의 현실과 이상』(김열규 외 ; 서울: 새문사, 1996), p.49.

학 작품들에 대해서만 긍정적으로 평가하던 북한이 얼마 전부터 귀족주의적·낭만주의적 경향을 띠는 문학 작품에 대해서도 그 미학적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 변화를 감안한다면 그 사정은 꼭 일방적이지만은 않을 듯하다.

다만 남한의 국문학사 연구자들 내지는 저술자들이 북한의 국문학사 연구자·저술가들처럼 분업과 협업을 조화시켜 국문학사서(國文學史書)를 쓴다든지, 북한의 국문학사 저술자들이 남한의 국문학사 연구자들처럼 어디까지나 문학 내지는 문학사적 사실을 주(主)로 하는 연구를 바탕으로 국문학사를 체계화하려는 노력—부분적 참고 작업·부분적 개선 작업—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도 유익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국문학사를 체계화함에 있어서 남한의 자유민주주의를 토대로 한 다양한 다원적·객관적 접근 방법과 북한의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를 토대로 한 획일적·주관적·이념적 접근 방법을 서로 절충한다거나 통합한다고 하는 일이 과연 가능할지 궁금하다. 필자는 이 자리에서 소박한 절충론자들과 통일론자들—변증법적 통일을 주창하는 학자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필자에 관한 한 남북한 간의 국문학 체계 통합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이 역시 지극히 회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적어도 국문학의 경우 남한과 북한이 서로 타협을 통해 학문 체계와 문학사 체계 간의 균형과 조화를 꾀한다거나 절충점을 찾아내기란 대단히 어렵다고 본다. 실현불가능하다고 본다. 이는 곧 체제선택의 문제와 직결되는 일로, 통일한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하는가, 사회주의 체제를 선택하는가에 따라 남북한의 국문학 및 국문학사 체계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채택, 어느 한 쪽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통일한국이 다행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하게 될 경우에는 국문학사의 경우 그 다양성·다원성의 체계·서술 속에 북한 국문학사의 체계나 서술이 함께 수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 여겨진다.